〔보 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27, No. 11 (2003) p.1190~1197

신문화식과 세꼴리식 여성복 원형 비교

최영림 · 김희은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A comparison of women's pattern between the Bunka and the Secoli

Young-lim Choi · Hee-eun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3. 2. 21.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methods of women's apparel prototypes and provide for some useful fundamental data to improve the apparel prototype suitable for Korean women. Two different drafting methods, the Bunka pattern of Japan Bunka Women's University and the Secoli pattern of Italy istituto carlo secoli, an italian pattern drafting institute, were selected. The result and discussion are as follows; In the calculation formula, the Bunka was shown more comfort at arm-hole part, because of it's lower arm-hole depth, wider arm-hole width and lower cap height in comparison with the Secoli. At the shoulder angle, the Bunka is inclined more in front shoulder than the back shoulder, whereas the Secoli is inclined more in back shoulder than the front shoulder. It could explain that the Bunka is suitable for bend-forward type and the Secoli is suitable for lean-back type. In the sensory test, the one-piece pattern of the Secoli with 4cm ease was highly estimated in ease. It seems young women's preference to body conscious clothes which reflected in many new elastic fabrics. At the bust point to neck, the Bunka was highly estimated, compared with the Secoli. It seems like to be caused that for the bust point to neck formula, the Bunka used bust girth, the Secoli used stature which has low correlation with the bust point to neck.

Key words: the Bunka prototype, the Secoli prototype, calculation formula, sensory test; 문화식원형, 세꼴리식원형, 제도식, 관능검사

I. 서 론

의복은 인체의 체형을 기준으로 미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이 서로 조화되어야 하며, 특히 대량생산에 의한 기성복이 보편화된 오늘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의 체형에 적합한 의복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체계측과 체형파악, 그리고 피복 인간공학적 측면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의복의 맞음새는 의복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몸에 잘 맞는 의복을 착용함으로 신체적 안락감과 함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신체는 정면, 후면, 측면의 조합에 의해 입방체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입체적인 인체에 평면의 포로 구성하여 옷을 입히는 의복제작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의복원형의 제작은 좋은 맞음새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구미지(1994)에 의하면 의복원형의 사용은 1950년대 중반 이후에 일본과 미국의 유학생들에 의해 문화식(일본 문화대학, 1981), 미국의 FIT식(Curtis, 1976), 프랑스식원형(Patricia, 1980) 등이 소개되었고 1970년대 중반 이후 영국식원형(Bray, 1974)과 독일 Müller & Sohn식 원형(현대기술서적편찬회, 1978)이 소개되어 사용되었다. 한국인의 체형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원형 제도법의 연구는 1970년대 초부터 많이 행하여져 왔으며,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상반신, 소매, 스커트, 슬

랙스원형이 연구되어 왔다. 기성복이 우리 의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령별, 체형별, 의복의 기능성, 기성복 표준치수 설정 등에 관한 연구와 몸에 잘 맞는 원형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기본원형은 기성복 제작의 기반이 되므로 인체와 의복간의 최적의 신체적합도를 고려한 원형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의 문화식원형은 패턴 메이킹과 관련된 과학적 이론을 실험실습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제도법이라 할 수 있다. 1999년에 개정된 신문화식원형은 일본의 교육기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원형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원형이며 한국 교육기관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원형이다. 또한 문화식원형은 우리 나라의 원형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선행연구에서 실험원형으로도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와 체형이 유사한 점이 많은 일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문화식원형에 대한 연구는 우리 나라 체형에 보다 적합한 원형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세꼴리식원형은 1934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패턴전문교육기관 istituto carlo secoli의 자체 개발원형으로 이상적인 인체비율을 의복에 반영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법이다. 이탈리아는 70년대 중반이후부터 고감도의 디자인, 소재, 패턴, 마케팅 등을 기본으로 세계 의류 시장을 주도해 오고 있으며, 국제적 규모의 패션산업체,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는 패션산업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볼 때 영국, 일본, 미국, 독일 등의 원형의 소개나 비교연구는 있어 왔으나 이태리 제도법을 다룬 연구의 예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적 이론과 이상적인 인체비율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관점에서 시작된 신문화식원형과 세꼴리식원형, 이들 원형의 제도법을 비교하여 인체 실측치에 근접한 산출식을 발견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며 착의 상태를 관능검사를 통해 외관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이끌어내어 신체 적합성이 높은 원형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

1. 원형 제도법

신문화식원형과 세꼴리식원형의 제도법에 있어 차이를 비교하였다. 각 원형의 제도식은 Table 2에서 나타내었다.

1) 신문화식원형 제도법

문화식원형은 우리나라의 대학과 학원에서 교육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형으로 평면구성 수업에서 사용되는 상반신원형의 종류를 분류하였을 때 4년제 대학에서 73.2%, 전문대학에서 79.4%를 차지하였다(이명옥, 2000). 또한 원형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실험원형으로도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체형이 유사함 점이 많은 일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문화식원형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체형에 보다 적합한 원형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식원형은 1999년에 개정되어 구문화식원형과 신문화식원형으로 구분된다.

2) 세꼴리식원형 제도법

세꼴리식원형은 8등신의 인체 비례를 원형 제도에 반영하는 점에서 기존의 원형(영국식, 일본식, 미국식)과는 다른 제도 체계를 갖고 있다. 둘레 문항을 설정하는 치수로서 윗가슴둘레를 사용하여 앞품과 진동품, 등품의 비율을 2:1:2로 나누며 길이 문항 설정에 있어서는 모두 신장/머리길이 비례치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비례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팔등신의 이상적인 인체 비율을 의복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세꼴리식원형에서 제시하는 상의원형으로는 여유분의 양에 따라 원피스원형(여유분 4cm), 박스원피스원형(여유분 6cm), 테일러드 재킷원형(여유분 6cm), 블레이져원형(여유분 6cm), 코트원형(여유분 7cm), 박스코트원형(여유분 8.5cm)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화식원형과 비교하는 세꼴리식원형으로 기본형인 원피스원형과 재킷원형을 선정하였다. 이는 신문화식원형이 여유분 6cm의 한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세꼴리식원형은 여유분에 따라 다양한 원형이 제공되고 있어 원피스원형은 기본형으로서 비교의 의미가 있으며 재킷원형은 기본선 제도에 있어 1/2가슴둘레+6cm로 신문화식원형과 동일한 여유분으로 제도되므로 동등한 환경에서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2. 관능검사에 의한 착의평가

1) 피험자 선정 및 실험복 제작

피험자는 국립기술품질원(1997)의 국민표준체위 조사결과에 따른 체형분류연구의 분류에 의해 보통체형으로 분류된 160cm~165cm의 N type(drop 4~12cm)인 2인의 성인 여성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Table 1). 계측방법은 국민체위보고서에 나타난 계측법을 따르며 총 20개 항목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였다.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unit : cm)

Age	Height	Chest	Bust	Waist	Hip
26	163.2	81	84	66	93
22	160.2	82	84	69	92

실험복은 신문화식원형, 세꼴리식 원피스원형과 세꼴리식 재킷원형으로 칼라가 없는 라운드 네크라인으로 제작되었으며, 실험복 제작에 요구되는 신체치수는 각 피험자의 실측치를 사용하였다. 검사자들의 평가를 돕기 위하여 실험의의 앞, 뒤 중심선, 진동깊이선을 표시하였다. 소재는 면 100%의 광목을 사용하였다.

2) 검사자

관능검사를 위한 검사 패널은 의류학을 전공한 석

Table 2. Calculation formula of the Bunka and the Secoli(三吉満智子, 2002; istituto carlo secoli, 1999) (unit : cm)

	신문화식원형	세꼴리식 원피스원형	세꼴리식 재킷원형
등길이	실측	1/8신장×2	1/8신장×2
길너비	1/2B+6	1/2B+4	1/2B+6
뒤길너비	15/64B+3.6	1/4B+1.5	1/4B+2.5
앞길너비	17/64B+2.4	1/4B+2.5	1/4B+3.5
뒤품	1/8B+7.4	2/10C+1.6	2/10C+2.1
앞품	1/8B+6.2	2/10C-1+2+1.6	2/10C-1+2+2.1
진동깊이선	1/12B+13.7	1/8신장+1.5	1/8신장+2.5
뒤목너비	1/24B+3.6	1/20C+2.8	1/20C+3.6
뒤목깊이	1/6뒤목너비	1/40C-0.2	1/40C
앞목너비	1/24B+3.4	1/20C+2.8	1/20C+3.6
앞목깊이	앞목너비+0.5	1/12C+1	1/12C+1
뒤어깨처짐	18°	4.7cm	4.7cm
앞어깨처짐	22°	6.7cm(뒤어깨처짐+☆)	6.7cm(뒤어깨처짐+☆)
앞·뒤 어깨처짐차	4°	2cm(☆)	2cm(☆)
뒤어깨길이		13.5(size 44, 각 사이즈당 그레이드 0.4)	13.5(size 44, 각 사이즈당 그레이드 0.4)
앞어깨길이	뒤어깨길이와 동일	뒤어깨길이와 동일	뒤어깨길이와 동일
유장	1/5B+8.3	1/8신장 1.7-1*	1/8신장 1.7-1*
유폭	1/8B+7.6	19(size 44, 각 사이즈당	19(size 44, 각 사이즈당
그레이드 0.9)	그레이드 0.9)		
앞길이	등길이+7/60B-5.4	1/8신장 2.5+1*	1/8신장 2.5+1*
가슴 다트량	1/4B-2.5°	2cm(B.P에서 7.5cm 위치에서 ☆)	2cm(B.P에서 7.5cm 위치에서 ☆)
뒤허리 다트량	◉의 7%+18%+35%	1.5+2.5	1.5+2.5
앞허리 다트량	◉의 15%+14%	3	3
옆선 다트량	◉의 11%	2.4	2.4
뒤어깨 다트량	1/32B-0.8	1.5	1.5
뒤어깨 다트 길이		8	8
제도시 계측부위	등길이 가슴둘레(B) 허리둘레(W) ◉=(1/2B+6)-(1/2W+3)	신장 윗가슴둘레(C) 가슴둘레(B) ☆=윗가슴둘레와 가슴둘레의 차의 1/2 *=뒤목점에서 부터의 치수	

사과정 이상의 성인 15명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자에게는 관능검사에 관한 사전훈련을 실시하여 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으며 검사장에는 검사자 15명과 피험자 1명만 남게 하였다. 원형의 종류에 대한 검사자들의 선입관이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착용순서는 피험자의 임의대로 입도록 하였으며 정해진 위치에서 앞, 뒤, 옆모습을 취하게 하였다.

3) 검사문항

검사문항은 모두 33문항으로 Erwin 등(1976)과 임원자(1970)의 검사문항에 필요문항을 추가하였다. 점수는 Likert의 5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각 검사문항마다 검사자가 직접 표기하게 하였다. 해당점수는 '아주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아주 그렇다'는 5점으로 환산하였으며 등간척도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4) 통계처리 방법

두 원형에 대한 검사 문항별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전체 평균점수를 구하였다. 검사문항 33문항에 대한 각 원형간의 유의차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분석

1. 비교원형간 치수 분석

신문화식원형, 세꼴리식 원피스원과 세꼴리식 재킷원형의 제도식의 차이에서 오는 각 부위의 치수를 비교하였다. 각 원형의 39부위를 계측하였으며 그 치수차이는 Table 3에 제시하였고 원형중합도는 Fig. 1에서 제시하였다.

(1) 등길이는 세꼴리식원형이 40.80cm, 신문화식원형이 39.70cm로 신문화식원형이 1.1cm 더 짧게 제도되었으며 인체 실측치수에 더 근접하다. 이러한 차이는 세꼴리식원형은 실측치대신 1/8신장 2라는 제도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이하 신문화식원형은 B원형, 세꼴리식 원피스원형은 SO원형, 세꼴리식 재킷원형은 SJ원형, 세꼴리식 원피스원형과 재킷원형을 통칭하여 S원형으로 표기함).

(2) 앞뒤길너비는 세원형 모두 앞길너비가 더 넓었으며 앞뒤길너비차이는 B원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선 제도시 앞뒤길너비차이는 B원형이 1.4cm, SO원형이 1cm, SJ원형이 1cm였으나 B원형의 뒤길에 허리다트(다트 d와 e)가 제도되어 가슴둘레선보다 위에서 끝나므로 여유분의 일부가 다트로 처리되어 상대적으로 앞뒤길너비차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B원형의 옆선이 등쪽으로 지나치게 이동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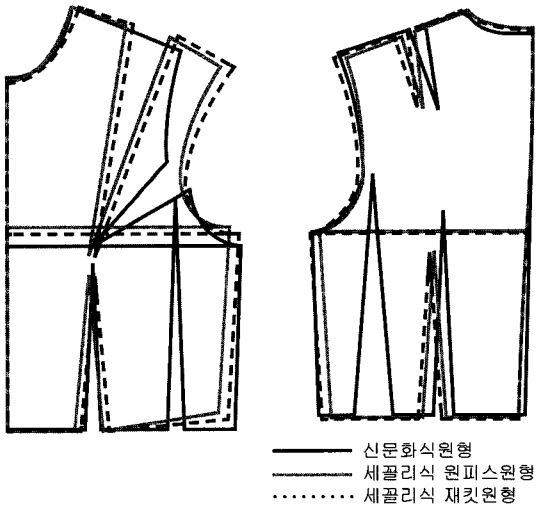

Fig. 1. Overlap map of the Bunka and the Secoil

(3) 가슴둘레의 여유량은 B원형이 6cm, SJ원형이 6cm, SO원형이 4cm로 제도되었으나 다트에 의해 실제 여유량은 SJ원형 4.77cm, B원형 4.12cm, SO원형 2.95cm로 나타났다. B원형과 SJ원형은 기본선 제도시 동일한 6cm의 여유분을 적용하였으나 B원형의 허리다트 d와 e가 가슴둘레선 위까지 연장되어 여유분이 적었다.

(4) 뒤품은 SJ원형이 18.30cm, B원형이 17.90cm, SO원형이 17.80cm 순으로 나타났는데 동일한 여유분으로 제도된 B원형과 SJ원형이 뒤품에서 차이를 보였다. 앞품은 SJ원형이 17.30cm, SO원형이 16.80 cm, B원형이 16.70cm로 B원형이 가장 적은 앞품을 나타냈다.

(5)진동품은 B원형 13.4cm, SJ원형 12.4cm, SO원형 11.4cm으로 나타나 B원형에서 가장 넓은 진동품을 보였다. 결국, B원형은 S원형에 비하여 진동품에 그만큼 더 여유를 두어 팔부위에 동작성을 더하였다.

(6) 뒤목너비는 SJ원형이 7.65cm, B원형이 7.10cm, SO원형 6.85cm의 순이었으며 뒤목 깊이는 B원형이

2.40cm, SJ원형이 2.03cm, SO원형이 1.83cm로 B원형이 가장 깊었다.

(7) 앞뒤어깨 처짐에 있어서는 B원형은 뒤어깨 18.00 , 앞어깨 22.00 , SO원형은 뒤어깨 21.02 , 앞어깨 18.87 , SJ원형은 뒤어깨 20.28 , 앞어깨 17.49 로 제도되었으며, 앞뒤어깨경사의 차이에 있어서는 B원형은 앞어깨경사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S원형은 뒤어깨경사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어깨경사각도의 차이에서 B원형은 어깨끝점이 앞쪽에 위치하고 S원형은 등쪽에 위치하여 B원형은 굴신체형에 더 적합하고 S원형은 반신체형에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

(8) 유장은 S원형이 26.28cm, B원형은 25.19cm로 인체 실측치인 25.35cm보다 S원형의 유장이 길게 나타났다. B원형이 더 인체 실측치에 가깝게 나타났는데 이는 B원형은 가슴둘레/5+8.3로 가슴둘레를 산출기준으로 사용하는 반면, S원형은 1/8신장 1.7-1로 신장을 산출기준으로 사용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형숙(1999)의 연구에 의하면 유장은 신장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어 신장을 기준으로 한 S원형의 산출식이 실측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앞길이는 B원형이 44.10cm, S원형이 44.55cm로 B원형이 S원형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길이와 등길이의 차이는 B원형은 4.40cm로 S원형은 3.75cm로 나타났다. 각 원형의 등길이가 다르게 제도되었으므로 각 원형의 앞길이만 단순비교하기보다는 등길이와의 차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B원형이 더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앞서 일관되게 나타났던 굴신체형의 특징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10) 가슴처리 다트의 각도는 B원형에는 18.50 , S원형에는 11.31 로 나타나 B원형에서 더 큰 가슴처리 다트가 확인되었다. B원형은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여 가슴처리다트를 산출하므로 가슴둘레 치수가 같은 경우 체형에 관계없이 같은 양의 다트가 제도되나, S원형은 가슴둘레와 윗가슴둘레의 차이를 이용하므로 같은 치수의 가슴둘레 치수를 가졌다 하여도 체형에 따라 다른 양의 다트가 제도된다. 김소라, 송미령(1997)에 따르면 같은 치수의 의복이라 할지라도 체형에 따라서 다트의 크기와 길이 등이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진동깊이선은 뒤목점 높이에서 진동선까지의 거리를 잰 것으로 SJ원형이 22.30cm, SO원형이 21.30cm, B원형이 20.70cm로 가장 짧았다.

(12) 앞뒤진동길이에 있어서는 세 원형 모두 뒤진동길이가 길게 나타났으나 그 앞뒤차이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다. B원형이 앞뒤진동길이의 차이가 2.27cm로 나타났으나 SO원형과 SJ원형은 그 차이가 1cm 안팎이었다. 이는 각원형의 앞뒤어깨각도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진동깊이에 있어 B원형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앞서의 진동품 부위의 결과에서 B원형이 S원형보다 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B원형이 더 짧은 진동깊이와 넓은 진동품을 나타내어 동작 적합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허미옥(1999)은 진동깊이를 올려주는 것이 심미성이 좋고 특히 인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동작에서 진동깊이를 올리면 동작 적합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2. 관능검사 결과 및 분석

B원형, SO원형과 SJ원형에 대한 관능검사의 결과를 one-way ANOVA 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15명의 검사자들이 각각의 원형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는지 검사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Cronbach 값은 0.8768로 검사자 간 일치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 신뢰도 계수는 B원형에 대해서는 0.8567, SO원형에 대해서는 0.9013, SJ원형에 대해서는 0.8758로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검사자들 상호간의 높은 일치의 경향을 가지므로 평균 결과가 객관성 있으며 신뢰할 수 있다고 하겠다.

관능검사문항은 전체관련 5문항, 앞판관련 10문항, 뒤판관련 10문항, 옆판관련 8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는 B원형이 3.15, SO원형이 3.30과 SJ원형이 3.26로 나타나 평균에서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각 원형별 평균점수는 옆판 5, 6, 7번 문항을 반전하여 산출하였다). 각 문항별로 세 원형 사이의 유의차를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6개의 문항에서 0.05수준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1) 전체부위의 가슴둘레의 여유분 관련 문항에서는 SO원형이 3.81, B원형이 3.12, SJ원형이 2.92의 평균을 보여 SO원형과 B원형, SO원형과 SJ원형간에 유의한 차를 보였으며 적은 여유분을 가진 원형일수록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섬유신문(1997)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섬유산업의 발달에 따라 신축성 있는 신소재가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여성

Table 3. The result of pattern measurements (unit : cm)

		신문화식 원형	세꼴리식 원피스원형	세꼴리식 재킷원형
등길이		39.70	40.80	40.80
길너비		46.12	44.95	46.77
뒤길너비		21.79	22.09	22.92
앞길너비		24.33	22.86	23.85
가슴둘레 여유분		4.12	2.95	4.77
뒤품		17.90	17.80	18.30
앞품		16.70	16.80	17.30
진동품		13.40	11.40	12.40
뒤목너비		7.10	6.85	7.65
뒤목깊이		2.40	1.83	2.03
앞목너비		6.90	6.85	7.65
앞목깊이		7.40	7.75	7.75
뒤목둘레		8.05	7.34	8.19
앞목둘레		11.32	11.15	11.76
뒤어깨처짐		18.00	21.02	20.28
앞어깨처짐		22.00	18.87	17.49
뒤어깨길이		12.40	12.25	12.75
앞어깨길이		12.40	12.25	12.75
뒤어깨너비		19.29	18.66	20.00
유장		25.19	26.28	26.28
유폭		18.10	17.60	18.10
앞길이		44.10	44.55	44.55
앞처짐			1.43	1.23
가슴 다트양		18.50	11.31	11.31
진동깊이선		20.70	21.30	22.30
뒤진동길이		18.72	18.31	19.39
앞진동길이		16.45	17.30	18.49
뒤진동둘레		21.82	20.55	22.17
앞진동둘레		20.67	21.51	23.35
허리둘레		36.00	36.68	38.66
뒤허리둘레		15.54	17.30	18.30
앞허리둘레		20.56	19.38	20.36
허리둘레 여유분		3.00	3.68	5.66
허리 다트 양*	a	1.68	3.00	3.00
	b	1.80		
	c	1.32	2.40	2.40
	d	4.20		
	e	2.16	2.50	2.50
	f	0.84	1.50	1.50

*신문화식원형의 허리다트 위치는 젖꼭지점 아래(a), 겨드랑앞벽접힘점 아래(b), 옆선(c), 겨드랑뒤벽접힘점 아래(d), 어깨뼈돌출점 아래(e), 뒤중심선 (f)이다.
세꼴리식원형의 경우에는 신문화식원형과 다트의 수량에 차이가 있어 위치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젖꼭지점 아래(a), 옆선(c), 어깨뼈돌출점 아래(e), 뒤중심선 (f)으로 표기하였다.

의 경우 이러한 신소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보다 신체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줄 수 있는 피트성 있는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앞품의 여유분 관련 문항에서는 SO원형이 3.88, B원형과 SJ원형이 2.96의 평균을 보였다. SO원형이 B원형과 SJ원형 각각에 유의한 차를 보여 전체부위에서 가슴둘레의 여유분 관련 문항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3) 유장 관련 문항에서는 B원형이 3.69, SO원형이 3.00, SJ원형이 3.00의 평균을 보여 B원형이 각각의 S원형과 유의한 차를 보였다. 이는 S원형의 유장이 인체 실측치보다 길게 제도되었기 때문인데, 유장을 산출하는 제도식에서 신장을 기준으로 하여 실측치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4) 뒤품의 여유분 관련 문항에서는 SO원형이 3.81, B원형이 2.96, SJ원형이 2.31의 평균을 보였다. SO원형이 B원형과 SJ원형 각각에 유의한 차를 보여 여유분에 관한 문항들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5) 옆솔기선 관련 문항에서는 SO원형 4.23, SJ원형 3.77, B원형 3.23의 평균을 보여 B원형이 SO원형과 유의한 차를 보였다. 이는 기본선 제도시 S원형은 가슴둘레에 있어 앞뒤판의 차이가 1cm인데 반해 B원형은 1.4cm로 옆선이 S원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쪽으로 이동되어 있으며 뒤길에 위치하는 허리다트들(다트e와 다트d)의 길이로 인하여 뒤길의 여유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B원형의 옆선이 등쪽으로 지나치게 이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신체 적합성이 높은 원형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위하여 신문화식원형과 세꼴리식원형을 비교하였다. 원형 패턴간의 치수비교와 관능검사를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문화식원형은 유장과 등길이 산출에 있어 인체 실측치에 더 근접한 결과를 가져왔다. 진동 부위에 있어서 세꼴리식원형과 비교하였을 때 더 넓은 진동품과 짧 진동깊이로 제도되어 팔부위의 동작적합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뒤길의 너비차이에 있어 세꼴리식원형의 2.7배에 해당하는 큰 차이를 나타내어 옆선이 등쪽으로 이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옆선의 위치는 지나치게

Table 4. The result of sensory test

	문 항	신문화식 원형			세꼴리식 원피스원형			세꼴리식 재킷원형			F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 가슴둘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3.12	A	0.82	3.81	B	0.69	2.92	A	1.02	7.740**
	2. 허리둘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3.19		0.98	3.54		0.71	3.27		0.83	1.202
	3. 허리선의 위치가 잘 맞는가	2.92		0.98	3.23		1.11	3.38		0.94	1.406
	4. 어깨끝점 길이는 적당한가	3.08		0.98	3.54		1.07	3.54		0.86	1.957
	5. 어깨선이 피험자에게 잘 맞는가	2.92	A	0.84	3.42	A/B	1.06	3.92	B	0.97	8.120**
앞판	1. 앞중심선이 바로 놓여 있는가	3.77		0.71	3.85		1.01	4.15		0.67	1.636
	2. 앞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2.96	A	0.92	3.88	B	0.65	2.96	A	0.66	13.008**
	3. 앞목둘레선은 제위치에 놓여 있는가	3.65		1.02	3.15		1.19	3.42		0.99	1.426
	4. 유장은 적당한가	3.69	B	0.79	3.00	A	0.94	3.00	A	1.02	4.903**
	5. 유폭은 적당한가	3.42		1.03	3.38		0.70	3.50		0.76	0.127
	6. 가슴처리 다트의 양은 적당한가	3.27		0.87	3.08		0.89	3.08		0.98	0.383
	7. 앞허리 다트의 위치는 적당한가	3.38		0.57	3.27		0.72	3.27		0.92	0.204
	8. 앞허리 다트의 양은 적당한가	3.15		0.73	3.38		0.80	3.38		0.85	0.726
	9. 앞허리 다트의 길이는 적당한가	3.31		0.74	3.46		0.88	3.42		0.76	0.251
	10. 앞의 전체 외관은 좋은가	3.27		0.96	3.35		0.80	3.32		0.99	0.047
뒤판	1. 뒤중심선이 바로 놓여 있는가	3.64		0.86	3.96		0.77	3.69		0.84	1.128
	2. 뒤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2.96	B	0.87	3.81	C	0.80	2.31	A	0.79	21.823***
	3. 뒤목둘레선은 제위치에 놓여 있는가	3.50		0.99	3.58		1.06	3.42		0.81	0.167
	4. 뒤어깨 다트의 위치는 적당한가	3.27		0.92	3.58		0.86	3.54		0.81	0.980
	5. 뒤어깨 다트의 양은 적당한가	3.58		0.58	3.54		0.86	3.46		0.95	0.137
	6. 뒤어깨 다트의 길이는 적당한가	3.08		0.89	3.31		0.84	3.54		0.81	1.929
	7. 뒤허리 다트의 위치는 적당한가	3.12		0.95	3.27		0.92	3.31		0.79	0.340
	8. 뒤허리 다트의 양은 적당한가	3.12		0.91	3.23		0.86	2.88		0.95	0.978
	9. 뒤허리 다트의 길이는 적당한가	2.92		1.02	3.12		1.07	3.15		0.97	0.383
	10. 뒤의 전체 외관은 좋은가	2.88		0.86	3.00		0.75	2.96		1.00	0.117
옆판	1. 옆솔기선이 피험자의 옆중심선에 놓여있는가	3.23	A	0.86	4.23	B	0.65	3.77	A/B	0.86	10.209***
	2. 겨드랑이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3.36		0.86	3.54		0.95	3.46		1.03	0.226
	3. 진동깊이는 적당한가	3.19		0.90	3.31		0.93	3.46		0.99	0.539
	4. 진동둘레의 선이 자연스러운가	3.27		0.92	3.19		1.13	3.27		1.04	0.048
	5. 앞진동부위에 군주름이 생기는가	2.92		1.06	3.04		1.25	2.50		0.99	1.717
	6. 뒤진동부위에 군주름이 생기는가	2.73		0.92	3.27		1.04	2.81		1.13	2.060
	7. 겨드랑이 부위에 군주름이 생기는가	2.52		0.92	3.00		0.98	2.88		0.99	1.672
	8. 옆의 전체 외관은 좋은가	3.16		0.99	3.32		0.95	3.19		1.20	0.162

알파벳은 sheffe 테스트 결과 p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한 것이다. (A<B<C)
*p≤0.05 **p≤0.01 ***p≤0.001

등쪽으로 이동되어 적당하지 못하다.

세꼴리식원형은 원피스원형이 4cm의 적은 여유분으로 더 적당하다는 평가를 얻었는데 이는 최근의 신축성 소재의 개발과 몸에 피트되는 의복에 대한 선호도 때문이다. 어깨경사에 있어 반신체의 특징을 나타내었으며 신문화식원형보다 더 미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신장을 기준으로 유장을 산출하여 인체 실측치보다 길게 제도되어 적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는

데 이는 이들 치수사이에 상관계수가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 원형의 특성은 국가별 체형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보이며 우리 체형에 적합한 원형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비교된 원형들의 장단점들은 우리나라 체형에 맞는 원형 연구에 기초 자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구미지. (1994). 부인복 길원형 제도법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219-230

국립기술품질원. (1997). *국민표준체위 조사보고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소라, 송미령. (1997). 체형별 토르소 원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2), 262-276.

三吉満智子. (2002). *복장 조형학 -이론편 I-.* 옹혜정 외 3역. 교학연구사.

이명옥. (2000). *국내 패션관련 교육기관의 의복원형 교육실태 연구 -길원형 평면구성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형숙. (1999). *20대 전반 여성의 체형별 기성복 치수설정과 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임원자. (1970). 여자대학생의 체형과 의복의 원형구성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8*(0), 21-35.

신축성 소재 [PBT] 각광. (1997, 2. 20). *한국섬유신문.*

허미옥. (1999). *진동깊이와 다트 사용에 따른 길원형의 동작 적합성 및 심미성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rwin, M. D., Kinchen, L. A., & Perters, K. A. (1976). *Clothing for Moderns.* McMillan Pub. Co. New York, 161-199.

Istituto Carlo Secoli. (1999). *Modellistica industriale donna.*